

세종 이성(李城) 동문지

실체 등 발굴 성과 논의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이성(李城)’에서 출입문 역할을 했던 동문지(東門址)의 실체와 토축 성벽이 처음으로 확인돼 역사적 의미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세종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통면 송성리 산24번지에 위치한 ‘이성(李城)’ 4차 발굴조사 현장에서 그간의 발굴조사 성과를 논의하는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발굴조사는 국원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장준식)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지는 지난 2020년 시굴조사에서 동문지의 가능성이 제기된 지점으로, 조사 결과 구조와 함께 토축 성벽 및 석축 성벽의 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흙을 쌓아 올린 토축 성벽은 그동안 이성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구조로, 이성이 백제 사비기 이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현장 자문회의는 10일 오후 3시와 11일 오전 10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발굴성과와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채봉 기자

태국 방문단 초청…세종

이스포츠 우수성 알렸다

태국 이스포츠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이 국제 문화를 교류하고, 우수한 이스포츠(E-스포츠)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6일 시청 문화센터에서 세종시 연고구단 ‘에프엔(FN) 세종’과 함께 35명의 태국 이스포츠 관계자를 만나 이스포츠를 매개로 한 긴밀한 국제적 협력을 모색했다.

태국은 최근 이스포츠를 프로 스포츠로 공식 인정하면서 이스포츠 산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이번 방문단은 태국에서 유일하게 이스포츠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쉐안쑤난다 라자팻(SSRU) 대학교와 정부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진 방문은 에프엔세종의 선수 양성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에프엔세종과의 협력 사업과 구단 운영 성과를 청취하면서 세종시의 연고구단 운영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또한, 에프엔세종 소속이자 올해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I)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홍지훈 선수와 이원상 선수의 ‘TC모바일’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방문단은 세종시와의 이스포츠 관련 문화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시는 에프엔세종과 지난 2023년 연고 협약을 맺고, 지역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채봉 기자

건축으로 잇는 충남의 과거·현재·미래

보령머드테마파크서 충남건축문화제 개최…참여형 축제로 대폭 확대



충남도민 모두가 건축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축제로 대폭 확대 개편한 ‘2025 충남 건축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도는 6·7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결:연결, 맺음, 이어지는 지속’을 주제로, 도민과 건축·디자인 종사자 간 소통 및 교류하는 화합의 장을 운영한다.

충남건축문화제는 2008년부터 도청사 내·외부에서 개최해 왔으며, 외부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민규 충남건축사회장, 김광현 충남총괄건축가, 도내 건축사, 대학생, 건설업계,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지사는 “건축은 우리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남은 이러한 건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전국 광역도 최초로 건축도시국을 만들고, 미래 100년 건축비전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건축문화제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위

주의 축제로 거듭났다”며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제 주제인 ‘결:연결, 맺음, 이어지는 지속’은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건축물과 사람이 소통하고, 과거·현재·미래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가치를 탐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 건축물에 대한 전시행사는 물론,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축의 원리를 놀이처럼 배울 수 있는 ‘학생건축체험’과 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을 직접 몸으로 익히는 ‘스마트 건설안전체험’을 마련했다.

건축 분야 취업을 꿈꾸는 도민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와 함께 도내 대표 건설사가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도 진행한다.

도는 박람회를 통해 건축 관련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고,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건축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탠다.

이현진 기자

일하는 밥퍼 1일 3천명 돌파 ‘행복한마당’

7일, 도청 문화광장에서 행복한마당 행사…장기자랑과 가수 축하공연 펼쳐

‘일하는 밥퍼’ 1일 참여인원 3천명 돌파를 기념하여 오는 7일(금) 도청 문화광장 815 일원에서 ‘일하는 밥퍼 행복한마당’ 행사가 개최된다.

충청북도시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25년을 ‘일하는 밥퍼’ 원년의 해로 정하고, 연말까지 1일 참여 인원 3,000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조기에 이루어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참여봉사자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대성로122번길 예술로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일하는 밥퍼 노래 합창 △세레모니 △참여봉사자 장기자랑 △시상식으로 구성되며, 일하는 밥퍼 참여자 모두가 행사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장기자랑은 총 4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일 예선을 치렀으며, 그중 10개 팀이 행사 당일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이 선정될 예정이며, 장기자랑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참여자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세대와 장애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은 ‘내나이가 어때서’를 부른 가수 오승근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미안미안해’ 등 여러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태진아의 특별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여자지의 대다수가 고령자와 장애인을 감안해 안전한 행사 운영 및 진행을 위하여 △의류부스 운영 △응급체계 구축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왕일 과장은 “그동안 ‘일하는 밥퍼’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과 장애인분들께 감사드리는 자리이자,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라며 “충북이 만들어낸 이 혁신적인 변화와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하는 밥퍼’는 2024년 7월 ‘일하는 밥퍼’라는 명칭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불과 1년 5개월만에 누적 참여 인원 27만 명, 일 참여자 3,000명을 돌파하는 등 도내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있는 사업이다.

한편, 충북도는 6일 ‘2025년 사랑의 열매 차량지원사업 도(道) 선정기관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현진 기자

중구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대전 중구는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신민섭 전문강사가 ‘당신은 원칙보다 예외를 더 궁금해하는 사람입니까?’라는 주제로 드라마, 뉴스 등 사례 자료를 활용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최근 젊은 직원들이 유입되면서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중구에서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교육이 조직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소통하는 청렴한 중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번 청렴교육을 비롯해 ▲반부패·청렴협의체 운영 ▲

『청렴소통』 창구 운영 ▲고위직 청렴 리더십 교육 ▲청렴방송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청렴이야기)』 ▲청렴 서약식 ▲청렴 골든벨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구는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지구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사업, 1세대입대주택사업 등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11월부터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참여 사업에 대해 ▲자율주택 정비 사업성 분석 ▲주택정비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법적·기술적 문제 해결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매월 2~4번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중구청 본관 도시재생과에서 실시되며, 중구청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채봉 기자

정책엑스포 미래지향적 행정통합!



대전시는 6일 호텔 ICC에서 ‘2025 대전 정책엑스포’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5극3특, 민선 8기 핵심정책 추진 방향을 정책자문단·대전연구원과 함께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 대전시 실·국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엑스포를 통해 정책자문단과 시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행정통합과 광역권 성장전략 등 굵직한 의제를 시장-전문가-연구기관이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최진혁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기획분과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을 주제로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했고, 이어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이 ‘5극3특의 시대의 광

역연합 기능강화와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 병행전략’을 제시하고 이후 연구기관과 국회 전문가들이 재정·행정체계·중앙부처 협의 등 현실 과제를 짚었다.

민선 8기 정책자문단을 이끌며 2년간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으로 시장 발전에 기여한 최호택 정책자문단장과 5개 분과위원장(최종인, 윤준호, 김명준, 정문현, 박종화)에게 대전광역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은 충남과의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 357만 명, GRDP 197조 원 규모의 초광역 행정체계를 만들어 충청권 전체를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엑스포가 대전이 과학수도이자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해법을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